

단양 수양개와 구낭굴 구석기유적 출토 숲의 수종으로본 고환경

박원규¹ · 김요정 · 이용조²

요 약

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숲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. 숲의 수종식별과 나이테 분석을 통하여 나무의 절대연대, 크기, 수령, 채취부위 뿐 아니라 그 당시 나무의 성장환경과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. 이와 더불어 꽃가루분석 및 씨앗분석 등이 실시되면 출토된 유적지의 자연환경 복원에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.

본 연구는 단양지역 구석기유적인 수양개 및 구낭굴에서 출토된 숲의 수종을 식별하여 구석기 고환경을 복원하고자 하였다. 수양개 유적에서 출토된 숲 142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. 그 결과는 소나무가 139점, 가문비나무가 3점이었다. 이용조(1988)의 수양개 후기구석기 유적 출토 숲 분석에서는 총 12개의 숲중 소나무가 10개 나머지 2개가 활엽수로 식별되었다. 이번에 조사된 수양개 숲 조사에서도 소나무가 주종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1988년 보고와 큰 차이가 없었다. 특히 이번 조사에서 140여점을 분석함으로써 수종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. 구낭굴에서는 가문비나무만이 조사되었다.

이상의 조사결과 단양 구낭굴의 수종구성은 추운 곳에 자라는 가문비나무를 주 수종으로 하고 수양개에서는 온난건조한 성분인 소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가문비나무가 소수 분포하였다. 구낭굴 유적은 마지막 빙기 최성기 이전 아빙기에 그리고 수양개 유적은 아빙기 사이의 비교적 온난한 기후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. 기온으로 보면 수양개 유적형성 시기에는 현재와 비슷하나 다소 더 건조한 기후였음을, 그리고 구낭굴 유적형성 시기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추운 기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. 이 두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활엽수종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.

1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

2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